

법과학시험분야 공인기관 인정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국가기관 최초 가축 DNA 검사 국제기준에 맞춰 수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오늘 본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

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학시험 디엔에이(DNA) 검사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2018년부터 준비해 왔다. 인정을 위해 기관의 인력, 측정설비 현황, 시험실 환경조건 등 문서심사와 한우확인시험법, 동물종관별시험법 등 현장 평가를 거쳤으며, 지난달 29일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기관 최초로 가축에 대한 DNA 검사를 국제기준에 준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104개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

받게 됐다. 또한 국제가축기독유원회(ICAR)가 인증하는 DNA 표준분석실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현 동물유전체과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가축 개량효과 극대화, 축산물 부정유통예방, 반려동물등록제 안착 등에 유전체 분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물 DNA 검사를 시행중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순창 구림면에 'JB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지난 10일 순창군 구림면에 위치한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 희망의 공부방 제114호'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식에는 순창군 황숙주 군수, 순창군의회 신용균 의장, 전북은행 김학봉 부행장, 이창훈 순창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완수 부회장,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 장혜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순창군 구림면에 위치한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14호' 오픈식을 가졌다.

2010년 개소한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 및 생활지도, 문화체험행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래된 센터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새롭게 도배를 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그동안 교체가 필요했던 학습용 테이블을 개인별 책상과 의자로 지원해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순창지점(지점장 이창훈)에서는 시골지역 아동들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학봉 부행장은 "아동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공헌활동을 펼쳐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빅데이터 벨리 구축 개발청-SK간 역할만

김이재 도의원, 기획조정실 행감서 "전북도가 가교역할 해야"

SK가 새만금에 구축하기로 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벨리로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SK가 새만금에 구축하기로 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벨리로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SK가 새만금에 2조 원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청과 SK간의 역할만 있을뿐 정작 소관 자치단체인 전북도의 역할이 전혀 없으며, 도가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통해 데이터벨리로 구축하는 등 국가 사업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 선진 도시인

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貴陽)시를 예로 들면서 4차산업 관련 5천 여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폭스콘,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센터도 구이양에 입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국사무소에 임무를 줘서 빅데이터벨리 구축을 위해 우리 전북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빅데이터 선진도시들과 교류를 비롯해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김제시 환경지킴이 활동 전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민운동장 일대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한 이번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공사는 김제시 시민운동장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환경보호 및 지역민의 환경보호 의식 개선에 앞장섰다.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지역 방역, 시설기부 등과 더불어 새만금 관련 시군인 군산·김제·부안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환경지킴이, 도색, 푸드나눔 등 총 8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문제점

나인권 도의원, "2018년 채용 478명 중 34%만 고용 유지"

도내 기업체 취업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에 최대 7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청년들을 상시근로인원 외의 더 채용하도록 지원하여 현장 실무 체험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원받는 인건비



가운데 올해에 비해 2018년 채용 478명 중 현재 고용유지 인원은 162명으로 34%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66%는 이미 퇴사했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고용을 지속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취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인권(김제 2) 의원은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에 채용된 478명 중 현재 고용유지 인원은 162명으로 34%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66%는 이미 퇴사했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했다. /유호상 기자

"기업 유치 절반이 아직도 미착공 상태"

최훈열 도의원

전북도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아직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11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도의회 행감에서 "전북도는 기업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며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힘든 상황이



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9월말 현재까지 193개 업체로 나타났고 투자예정금액은 5조 5,537억원에 고용예정 인원은 1만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유치한 기업을 제외

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유치한 기업은 총 15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67곳이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동 중인 기업은 60곳(39%)으로 나타났다. 전체 154곳 가운데 34곳(22%)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미 투자를 포기한 상태다. 최 의원은 "기업유치 MOU만 대대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통 소줏고리의 현대화

한국 식품업 전통식품연구단 김태완 박사 연구팀 한국형 증류기 개발... 세라믹기술원과 연구 통해 기존 대비 열효율 13.6% 증가·증류시간 절반 단축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 전통식품연구단 김태완 박사 연구팀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융합연구를 통해 전통 소줏고리를 현대화한 한국형 증류기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증류주 시장은 약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 성장률 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증류주 생산국들은 지역 기반 전통 증류주를 산업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Whisky), 프랑스의 꼬냑(Cognac), 미국의 버번(Bourbon), 중국의 백주(白酒, Baijiu), 일본의 오토루 이소추(乙類焼酎, Shochu) 등 자국의 전통 증류주를 명품화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 전통식품연구단 김태완 박사 연구팀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융합연구를 통해 전통 소줏고리를 현대화한 한국형 증류기를 개발했다. 식품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산업화 융합연구로 탄생한 한국형 현대화 소줏고리 증류기는 기존 전통 소줏고리 대비 열효율은 13.6% 증가했으며 증류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 전통 소줏고리 현대화 프로젝트는 세계 명품 증류주 시장을 겨냥해 식품(연) 주도로 2018년 '전통 증류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본 사업은 다분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통 양조 기술의 현대적 해석과 산업화를 목적으로 식품(연),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주)화요, 영국 Campden BRI 등 출연연과 대학, 기업, 해외 식품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융합연구단(연구인력 50명 규모)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다양한 증류의 증류주가 제조돼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전통 증류주는 쇠퇴하게 되었다. 최근 전통 문화의 재발견, 과학적 재해석과 부흥에 힘입어 전통 증류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식품연 전통식품연구단에서는 전통 소줏고리의 증류기 재해석을 통해 열소비, 냉각 열교환 효율화 방안을

개발했다. 다기관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유일 흙 소재 증류기인 소줏고리의 특성을 강화하고 열효율을 극대화한 한국형 증류기를 개발했다. 식품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산업화 융합연구로 탄생한 한국형 현대화 소줏고리 증류기는 기존 전통 소줏고리 대비 열효율은 13.6% 증가했으며 증류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 전통 소줏고리 현대화 프로젝트는 세계 명품 증류주 시장을 겨냥해 식품(연) 주도로 2018년 '전통 증류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본 사업은 다분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통 양조 기술의 현대적 해석과 산업화를 목적으로 식품(연),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주)화요, 영국 Campden BRI 등 출연연과 대학, 기업, 해외 식품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융합연구단(연구인력 50명 규모)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명품 증류주 개발 및 이에 수반되는 균주, 증류, 숙성 관련 소·부·장 기술개발은 주류산업과 연관산업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도내 예비창업 교육 수료자 전문가 컨설팅 지원한다

경진원, 창업콘텐츠 라인업 전문가 멘토링 20일부터 진행

전북도경제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020년 도내 예비창업 교육 수료자 대상, '창업 콘텐츠 라인업(LINE-UP) 교육'과 경영자문, 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오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예비창업자교육인 지식기반창업교육 및 4050행복창업 프로젝트 수료자로 교육 대상인원은 469명이다. 창업 콘텐츠 라인업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대면사업자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에 대비한 교육 IOT점목 사전 실습교육이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은 SNS채널개설, 온라인 창업운영 방법 등에 대한 1대1 맞춤형컨설팅으로 온라인 화상 웹캠 활용 컨설팅도 신청가능하다.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이 힘든 만큼, '준비된 창업'을 통해 초기창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예비창업자수료자 대상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은 경진원 교육관리 시스템(edu.jbba.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63-711-2102~21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보여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주제로 진행한 전북농협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여주세요... 당신의 일상'

전북농협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시상식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보여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주제로 진행한 전북농협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매장으로, 전북농협은 출하 농가와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소비자의 소중한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를 농부와 고객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받아 평가를 했다. 최우수상에 농부 조아라(27, 김제)씨의 '떨어 만든 아빠의 농부로그'와 고객 윤성은(32, 전주)씨의 '윤씨농장'

이, 우수상은 농업인 한종성(남원), 오경선(익산), 고객 김미자(부안), 이지현(전주)이 선정되는 등 모두 6명이 수상했다. 조아라씨는 귀농한 로컬푸드 출하자인 아빠의 영농활동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전달하려는 모습을 참신하게 담아내 농산물 이력에 대한 신뢰도를 잘 표현했고, 윤성은씨는 일반 마트와 가격비교, 타 매장에서 살 수 없는 지역 가공품을 다양하게 소개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로컬이미지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